

헤겔과 그의 哲學(四)

李灌鎔

『헤겔』이 事物을 觀察하든 方法을 흔히 『歷史的 方法』이라고 부르니 『歷史的 方法』이란 것의 特徵은 事物을 그 客觀的 具體的 形態 그대로 보려는 努力에 있는 것이다. 卽 交互적으로 關聯된 自然의 體系에서 한 事物을 分離 識하여 觀察코자 努力함은 事物의 抽象的 形態를 觀察함임으로 結局은 客觀的 眞相을 把握할 수 업을 것이요, 한 事物의 認識에 잇서서 그 自體의 本質을 그 環境과 그 過去와 그 動作에 依하여 判定함은 그 事物의 具體的 形態를 觀察함이다. 個物의 性質을 化學的으로 分析만하여 본다고 그 終局的 眞相까지 이를 수 업는 것 가티 個人的 歷史 社會的 地位 活動에 나타나는 個性等을 無視하는 觀察은 一個人의 客觀的 性質을 把握할 수 업을 것이다.

『헤겔』에게는 理性이 事物을 卍斷의 標準이 아니요, 事物속에서 內在的으로 經驗的 現象을 規定하는 法則 그것이다. 그 卍답에 사람으로서 事物에 對하는 卍斷을 내리기 위하여 一定한 標準을 卍로 세울 必要가 업고 우리는 다만 事物의 不絶히 展開되는 過程을 直接으로 經驗함에 依하여 이 展開의 法則을 發見하고자 努力할 것이다. 이 展開法則이 理性的이라면 理性은 事物에 內在하는 客觀的 法則이요, 우리 마음속에 잇는 主觀的 法則은 아닌 것이다. 卽 마음속에 잇는 論理的 法則으로 事物에 對하여 卍斷을 내리는 것이 아니요, 事物展開의 論理에 依하여 마음이 그 客觀대로 認識하는 것이다. 그 卍답에 우리의 認識하는 바 事物展開의 論理 卽 論理的 思惟는 客觀 世界의 展開法則과는 同一한 것이라는 歸結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, 『헤겔』이 思惟와 實在와 同一하다고 主張함도 그 根據가 여기잇는 것이다. 이 主張을 根據로 『헤겔』은 客觀世界를 『論理化』하였다는 것이요, 이러한 主張을 『汎論理主義』라 부르는 것이다. 그러나 여기 思惟란 것은 決코 個人的 感覺과 感情의 □□을 바더가면서 하는 思惟를 말함이 아니요, 宇宙全體에 內在

하는 理性的 法則 卽 神의 法則을 가리쳐 말함으로 客觀的 世界의 엇더한 事物의 展開法則이든지 經驗할 때마다 神을 認識하게 되는 것이다. 그 까닭에 사람이 科學的 認識으로 客觀世界의 展開法則을 經驗하면 經驗할수록 神을 더욱 갖잡게 認識하게 되는 것이요, 發展이란 것은 神의 法則이 展開됨을 가리쳐 말함이다.

發展은 辨證法에 依하여, 進行하는 것이니 辨證法的 進行은 『正』에 對한 □反 正과 反의 綜合으로 成立되는 『습』의 三段을 밟아 成就되는 것이다. 이것을 『혜결』이 使用하는 實例로 說明하면 『꽃봉오리는 꽃이 피어서 엽서지는 고로 꽃봉오리와 꽃은 서로 □□關係로 對立하였다 할 수 잇스며 同時에 꽃은 열매를 因하여 엽서짐으로 그 □物에게는 □有的 現象맞게 안 되는 것이요, 열매는 꽃 대신에 생긴 것이다. 이 세가지 形態는 서로 區別될 뿐만 아니라 不可 兩立 關係 卽 □□關係도 對立하여 서로 排除하는 것인 동시에 이러한 變換過程에 잇서서도 全體가 한 有□的 單位를 構成하고 互相□□되지 안힐 뿐 아니라 도리혀 各 階段이 必要的 것을 알 것이니 이 必要가 卽 全體의 生活을 意味하는 것이다』 그러면 꽃봉오리만이나 꽃□열매만이 實在가 아니요, 세 가지 階段全體가 實在인 것을 알겠다.